

## 고유가와 자주개발원유 확보 필요성



나 병 선  
〈 한국석유공사 사장 〉

최근 석유공사가 탐사운영권자로 있는 베트남 제15-1 해양광구에서 2억5천만~4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여 고유가로 시름에 빠져있던 국민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었다.

베트남에서의 유전발견은 2004년 생산시 원유 전량을 한국에 직접 도입할 수 있는 우선권과 수송거리가 가까워 다소나마 원유 도입가격을 낮출 수가 있어 경제성이 높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아직 국내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우리로서는 우리 손으로 필요한 석유를 확보하려는 자주개발원유확보 정책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하루 216만 배럴을 소비하여 세계 제6위의 석유 소비국이며 이를 전량 수입하는 세계 제4위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특히 우리는 세계 10대 석유소비국중 국내에서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유일한 비산유국이다. 작년 우리가 석유수입을 위해 지출한 외화는 약 176억불이었으며 올해는 사상 최고인 300억불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유가가 1불 상승할 때마다 국제수지는 약 10억불 악화되며 소비자 물가는 약 0.17%가 상승하는 등 석유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권의 신흥시장국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원 확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저석유소비형으로 전환하여 석유의존도가 70년대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신흥시장국들은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석유소비 중심의 산업구조와 소득증대에 따른 석유 소비증가로 고유가에 의한 충격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분석은 우리와 같이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소비국들의 고유가 대응책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선진국들이 현재와 같은 산업구조로 석유의존도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석유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십 년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의 소비국들은 1920년대부터 석유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석유사를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세계 유수의 석유사로 발전시켜 자국의 석유수요중 30~75%까지 해외에서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였다. 이들 국가들이 일찍부터 앞다투어 자주개발원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석유자원의 전략적 특성과 석유개발산업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석유자원은 식량과 같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전략자원으로 안정적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전체에너지원의 54%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도입량의 70%이상을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은 전통적으로 군사, 정치 및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언제 공급장애가 있을지 모르며 유사시 석유는 일반시장을 통해 확보가 불가능한 전략물자로서 국가간 배타적 거래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주석유개발을 통한 석유자원확보는 전략자원의 비축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자주개발원유를 확보하였을 경우 산유국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어 보다 유리한 조건의 석유자원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또한 석유개발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산업이다. 석유개발사업을 통해 우리가 직접 발견, 개발한 석유를 도입할 경우 매우 저렴하게 석유를 도입할 수 있다. 석유개발에 드는 비용은 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하락하여 '99년 기준으로 배럴당 10불 정도이나 우리가 들여오는 석유의 수입가격은 현재 28불을 상회하고 있어 배럴당 18불 이상 싸게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석유개발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연관산업(건설, 철강, 기계 등)에 대한 효과가 크다. 활발한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참여는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생산설비 공급의 참여확대가 기대되어 외화기득을 높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자주개발원유 확보를 위해 지난 '81년부터 해외석유개발에 뛰어들어 '99년말 기준으로 총 94개 사업(36개국)에 약 29억불을 투자하였다. 우리가 확보한 매장량은 총 8.5억 배럴('99년기준 국내 354일 소비분)이며 '99년에 약 15백만 배럴(하루 약 4만배럴)의 자주개발원유를 공급한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주개발원유 확보율은 '99년 기준으로 전체수요의 1.7%에 불과하며 정부의 2010년 자주개발원유 확보율 목표 10%도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의 1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석유개발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리국민들의 석유개발에 대한 인식부족과 정부의 지원미흡 그리고 석유개발주체인 기업들의 능력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유가가 높으면 이구동성으로 석유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다 유가가 낮아지면 많은 돈을 들여 리스크가 큰 석유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국민들의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베트남 15-1광구도 저유가와 외환위기로 매우 어려웠던 '98년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룬 성과임을 생각한다면 유가의 등락에 관계없이 석유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석유개발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88~'99년까지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약 6.3억불을 지원한바 있다. 그러나 석유개발사업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장기투자사업이라는 특성을 감안 할 때 현재의 지원규모가 미미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자원특별회계로 매년 약 2조원을 거두어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개발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의 5~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40년간 약 470억불을 석유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10년까지 자주개발 원유확보율 1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2003년까지 석유개발지원 예산을 연간 3천억원 규모로 증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지원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석유개발사업이 부진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사업추진의 비효율성에 있다. 그동안 민간주도하에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사업환경이 바뀌거나 기업주의 결정에 따라 하루아침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철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98년 외환위기후 사업환경이 어려워지자 석유개발사업을 수행하던 민간기업 25개기업중 9개기업이 석유개발사업에서 철수한 바 있다.

단기수의 위주로 기술, 경험 없이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같은 민간기업의 사업추진방식이 아직도 결함 단계인 우리의 석유개발산업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영석유사를 집중 육성하여 석유개발산업을 발전시킨 프랑스, 이태리등 유럽소비국들의 성공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석유개발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다수 민간기업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기술, 경험능력이 앞선 선도국영기업을 지원, 육성하여 석유개발산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외환위기이후 회복되고 있는 우리경제가 다시 휘청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우리국민의 저력을 발휘하여 그 동안 흐트러진 에너지 절약정신을 가다듬는 한편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이번의 고유가 위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석유개발업계는 그 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전국민이 공감하고 실천가능하며 효율적인 자주개발원유확보정책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석유개발산업발전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